

농림수산식품부

▶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정부는 지난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이번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확산되어 축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대통령께서 지난 1월 6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하신데 따라 수립된 것이다. 이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TF가 구성되어 대책을 협의해 왔고 지난 3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김황식 총리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하고, 구제역 방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축산인, 민·군·관의 관계자, 자원봉사자들과 불편을 감내한 국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황식 총리는 이번 대책이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보다 확고히 하여 선진화된 축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기적 백신 접종 실시, 방역체계 강화, 가축 사육환경 개선, 매뉴얼의 철저한 보완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세부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방역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축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업, 친환경

축산업을 일구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정책' P122 참조).

▶ '청정(CLEAN)축산 운동' 전개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지난 3월 21일부터 축산인,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업계 등이 참여한 '청정(CLEAN)축산 운동'을 전개했다.

봄철을 맞이하여 일제 청소·소독을 실시하여 구제역·AI 전파의 고리를 차단하고, 구제역·AI 발생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한 축산인의 자성과 새로운 청정축산을 다짐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청정축산 운동에는 축산농가, 축산관련 업계 및 종사자, 행정기관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추진하며, 청소·소독 등 청정축산 운동에 대한 실천의지 고취와 생활화가 정착되도록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도에서는 지난 3월 21일 주간 축산인, 지역 축산단체·소비자 단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청정축산 운동 실천 및 자정 결의대회와 방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의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 24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청정축산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고 축사 내외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다짐했다.

전국 축산농가에서는 축사 및 축사관련 시설에 대한 청소·소독을 지난 3월 23(수) 일제히 실시했으며, 향후 이 행사를 지속적인 청정축산 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의

된다.

자연환기식보다는 기계환기식 계사가 닭에게 적절한 환경조건을 마련해 주는 데 유리하며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다.

환절기가 되면서 낮 기온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계사 내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 발생량이 증가하므로 주간에는 환기량을 증가시켜야 하며 야간에는 환기량을 줄여 주어야 한다.

무창계사를 사용할 경우 터널식과 측면배기 크로스식 또는 지붕 배기팬을 이용하여 배기를 실시한다. 겨우내 최소환기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을 점차 늘려 바깥공기를 자주 쐬어주도록 한다.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심하므로 닭 체온을 빼앗아 설사나 기침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닭 주위의 공기흐름속도를 매초 0.2~0.5m/s 이하로 유지한다.

이와 같이 계사 내 온도·습도조절을 철저히 하여 호흡기질병을 예방해야 하며,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무창계사 형태가 환절기 계사 내 환경조절에 적합하다.

▶ 축산농가의 황사 대처요령 제시

농촌진흥청은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황사가 가축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가축과 사료가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사가 발생하면 공기 중에 미세한 분진과 세균, 곰팡이 등이 증가해 가축의 호흡기에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눈에 들어가게 되면 각막을 손상시켜 눈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황사 기상예보가 발표되면, 축산농가에서는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

시키고, 축사 안으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또한 야외에 있는 사료, 건조,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가 묻지 않도록 한다.

황사가 지나가고 나면 소독약으로 축사 내부와 외부에 분무 소독을 충분히 씻을 정도로 실시하고, 사료 급이기가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에 묻은 황사는 깨끗이 씻은 후 소독약을 분무한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피부에 묻은 황사를 털어 낸 후 고압 분무소독기를 이용해 소독한다.

황사가 끝난 후 14일 동안은 가축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해 이상증후가 있으면 수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해 조기에 치료하고, 구제역과 유사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읍·면이나 가축방역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신고한다.

▶ 축종별 강소농 육성 모델 개발 보급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작지만 강한 축산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축산분야 '강소농' 육성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강소농 육성 추진단'을 지난 3월 24일 발족했다.

보직경험이 있는 축종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소농 육성 추진단'은 축산경영체 유형에 맞는 맞춤형 R&D 패키지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해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을 대상으로 '종합컨설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양계단지 육성' 등 6개 유형의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축산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분청, 지방농촌진흥기관,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축협, 축산단체 등 유



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기술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강소농 육성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강소농 추진단이 중요시하는 농촌현장 접근 지원으로는 대상 경영체 선정 및 기술지원 협의체 구성, 대상 경영체 컨설팅 및 경제성 분석, 경영마인드 제고의 명품교육을 통한 축산경영체 역량강화, HACCP 등 가축질병 예방 및 이동 방역 상담 등으로 그동안 개발된 기술들이 축산분야 강소농 육성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 노사관계선진화 우수기관 사례 발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최형규)은 지난 3월 25일 130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공공기관선진화 워크숍'에서 노사관계선진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최형규 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단체협약서 개정'이란 주제로 노사관계선진화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노사 공동으로 노사발전위원

회를 구성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무관리와 건전한 노조 활동은 최대한 지원하는 분위기를 정착 시켜온 결과 노동부로부터 '노사상생 양보교섭 실천기업', '작업장 혁신 우수기업' 인증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여 이번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노사관계선진화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하게 된 것이다.

노사관계선진화 주요 내용은 노조 측의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임금 및 근로조건 변경 시 노조 합의조항 등을 단체협약서에서 삭제했고,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으로 경영선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인력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했다.

또한 축산물품질평가원 노사는 '마음나눔 2010'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전 직원의 자발적 임금 반납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지역사회 불우시설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직원 1인당 평균 1.3매의 헌혈증을 기증한 바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원장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한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의 정신으로 사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 축산물 HACCP 업무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개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은 지난 3월 30일 9층 회의실에서 축산물 HACCP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HACCP 관계자(축산물판매분시장 채형석, 축산컨설팅부장 송택호, 축산물위생교육원장 원형재)를 초청하여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최근 농협이 추진하는 안심 축산물 판매장에 효율적인 HACCP적용 방안과 지역조합의 적극적인 농장 HACCP컨설팅 참여를 유도하고, 알기 쉬운 현장적용을 위한 농장 HACCP교육 방안 등을 공동 노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석희진 원장은 이 자리를 통해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축산물 HACCP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선도하는 농협과 기준원의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잘 조합하여 HACCP 활성화 및 제도 정착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기준원 관계자는 축산물 HACCP 업무를 하는 양기관의 농장, 판매, 교육 등에 대한 실무분야의 실질적인 사항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매우 유용한 계기가 되는 자리였으며,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청정축산운동’ 선포식 개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3월 24일 농협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청정축산운동’ 선포식을 갖고 ‘한국축산의 백년대계’를 위해 ▲친환경축산 ▲분뇨자원화 ▲악성가축질병 근절 ▲축산업 역량강화를 다짐했다.

특히 전국의 범 축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율적인 청정축산운동 분위기 조성과 실천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선진축산’을 만드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성우 대표와 이승호 회장을 비롯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과 안명수 전국주부교실모임 부회장, 정정수 동물자원과학회장, 박용호 수의학회 이사장, 서성배 계육협회장, 남호경 한우협회장, 이병모 양돈협회장, 이준동 양계협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 정영재 수의사회장, 최형규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석희진 HACCP기준원장, 문제풍 낙농진흥회장, 조남조 사료협회장, 이용구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김명호 가축인공수정사협회장을 비롯한 축산생산자단체와 연관산업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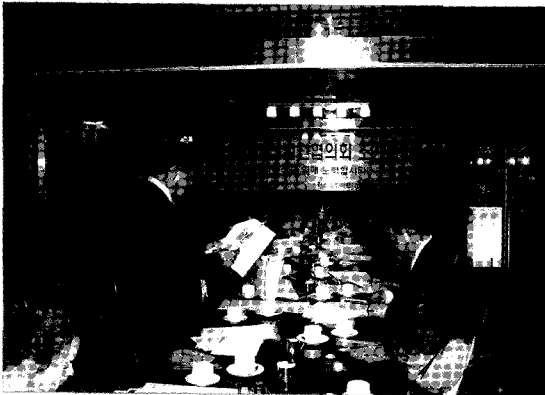
이날 참석자들은 청정축산 실천 선언문을 채택

하고 전국의 모든 축산시설에 대한 청소와 소독생 활화로 악성가축질병 재발을 방지하고 국내산 축 산물의 신뢰회복을 위해 친환경·안전 축산물 생 산에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특히 도시와 농 촌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의 모 든 축산농가와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앞장서 '청정 축산' 구현에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에서 청정축산운동 시작을 알리는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

▶ 사단법인 전환 추진



한국가금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 3월 23일 인터 컨티넨탈호텔에서 (주)하림 김홍국 회장, (주)마니 커 한형석 회장, (사)한국계육협회 서성배 회장, (사)한국토종닭협회 김연수 회장, (사)한국오리협회 이상호 회장, (사)한국계란유통협회 강종성 회장, (사)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이경우 전무, (주)제너시스BBQ 김종태 사장, (주)GNS BHC 우길제 사장, (주)조인 한재권 회장,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변동주 사무관,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이상호 위원장 외 가금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 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형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과거 시 발생으로 업계는 막대한 피해를 입 어왔지만 가금산업발전협의회는 눈부신 활약으로 인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몫을 해 왔다" 면서 "앞으로 시 문제뿐만 아니라 가금산업이 상 생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국 회장도 인사말에서 "협의회는 가금산업 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할이 컸을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 다"면서 "정부, 가금단체, 업체 등에서도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협의회에서 도맡아 왔고, 소 비자들도 시를 더 이상 우려하지 않을 만큼 시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서성배 회장은 "농가 방역단계의 중요성을 강조 했으며, 농가와 협회가 하나로 결속될 수 있도록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협의회가 3년여 만에 재 발한 시로 인한 가금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고, 협의회가 단순히 시의 제한적인 움직임에서 벗어나 가금산업을 총체적 으로 아우르는 단체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협의회의 역할이 방대해졌으 나, 임의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만큼 협의회의 사 단법인 전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조속한 시일내 법인화를 통 해 가금산업 발전을 위해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K>